

어린이 책꽂이

▲철새지킴이 노빈손, 한강에 가다 =만화가 이우일의 일러스트가 보는 재미를 더하는 '신나는 노빈손' 가다 시리즈, '철새타일즈'의 흥보대사가 된 노빈손과 말속이는 한강 하구에서 철새를 탐조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뜨인돌·8천500원>

▲교과서 속 인체 101가지=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생생한 과학 이야기를 엮었다. 학년별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체 기관을 살펴보고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같은 제목의 인체·동물·식물·우주·지구 등 교실밖 신나는 수업 시리즈가 이어진다. <길벗스쿨·8천800원>

▲달걀을 품은 할아버지=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의 원작을 동화작가 웬디 앤더슨 홀퍼린이 어린이들을 위해 다시 썼다. 프랑스 시골 마을의 앙트완 할아버지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을 준다. <북폴·8천800원>

▲나는 누구보다 씩씩해=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여자 스웨터를 입었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등 소심한 성격의 주인공 야곱은 아빠가 선물한 빨간 모자를 쓴 뒤 확 바뀐다. 자신없는 노래를 크게 부르고, 놀림 받은 친구를 구해주는가 하면 치과 치료까지 씩씩하게 받는 야곱의 새로운 일상이 흥미진진하다. <토마토하우스·9천원>

▲우리놀이가 우리문화=2005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뽑힌 백희나 작가의 다종이 인형이 급방이라도 책 밖으로 나올 것 처럼 생생하다. 1년 12달 동안 우리 선조들은 어떤 풍습과 놀이를 즐겼는지 의상스럽게 표현돼 있다. <한울수북·8천800원>

# 살인사건... 스캔들... 日帝下 朝鮮 사생활 벗기다

경성기담 전봉관 지음

1934년 3월 17일자 조선중앙일보에는 윤신실이 폭로한 '교장과 학생의 키스 내기 화투' 기사가 실렸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스캔들의 장본인이 3·1 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희도였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은 반전을 거듭하고 박희도와 윤신실, 그녀의 남편이자 박희도의 친구인 노원우의 '진실게임'은 계속된다. 1931년 8월 1일 부산 다카하시의 집에서 조선인 하녀 마리아가 변사체로 발견된다. 경찰은 다카하시 부인 등을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 상황은 사건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간다. 살인 사건과 스캔들은 한 사회의 감추고 싶은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돋보이기자 사회·정치·문화사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황금광 시대'의 저자 전봉관(KAIST 인문사회과학부)교수가 펴낸 '경성기담(京城奇談)'은 1930년대 조선을 발각 뒤집어 놓은 10개의 살인 사건과 스캔들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극적이고 기이한 '이야기' 자체에 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듯 아무 생각 없이 책장을 넘겨도 좋고 행간을 읽으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의 분위기를 느껴도 좋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에 실린 사건들은 잘짜인 각본 같다. 풍부한 사료와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한 작가의 경쾌한 글쓰기 또한 책장을 빨리 넘기게 하는 힘이다. 책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건 '그 때 그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도들의 재산과 여성(女傭)들을 상납받고도 300여명을 살해한 교주 전용의 '백백고 사건'은 오래양 사건 등 사이버 종교의 폐해를 떠올리게 한다. 1920년 스톡홀름 대학 최초의 동양인 유학생이었던 최영숙의 '스캔들'은 여성의 사회참여, 혼혈아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조선의 노동자와 여성을 위



저자 윤신실과 '키스 내기 화투' 사건에 휘말린 박희도(오른쪽)와 서양 무희 사진을 합성한 '제일선'에 실린 사진.

## 부산 마리아 참살·백백고 사건 등 30년대 벌어진 '엽기적' 이야기

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제학 학위를 받고 귀국한 최영숙은 5개 국어에 능통한 재원이었지만 인텔리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조선 사회에서 '몽나물 장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일할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관심도 없던 사회는 스물 일곱에 세상을 떠난 그녀가 배속에 5개월된 인도 혼혈아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혹한 갖대를 들이댄다. 또 경성 한복판에서 발견된 몸통 없는 아이의 시체를 둘러싼 경찰의 어이 없는 수사 방식을 읽으며 혀를 끌끌 차다가도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보여줬던 화성연쇄 살인 사건 수사팀의 우왕좌왕을 떠올리면 그냥 웃을 수만은 없다. 그밖에 책은 '이화학당 최고의 수재이자 미인'이었던 박인덕이 이혼을 요구한 사연, 조선 최고의 테너 안기영이 가정을 버리고 여제자와 결합한 사연, '재무왕'으로 불렸던 순종의 장인 윤택영의 스캔들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개인의 허물많은 사생활을 보여주는 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욕망 앞에 이념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살림·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도정일·최재천의 '대담'

도정일과 최재천은 신문이나 잡지의 칼럼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인데, 나는 이들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로 생각한다. 이들의 글은 늘 챙겨 읽는 만큼의 즐거움을 준다. 도정일 칼럼의 매력은 해박한 사유의 저변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지적으로 승복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데 있다. 문학 전공자로서 인문학의 한 칸에서 서 있는 나는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새롭게 정리하곤 한다. 최재천의 글은 명쾌해서 좋다. 그는 과학의 산물을 누리는데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의 이해와 과학적 사유의 길을 시원스럽게 제시해 준다. 과학자에게는 현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적 전문 지식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일반 지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 나에게 그는 이상적인 생물학자이기도 하다. 이 두 사람의 대담집인 '대담(휴머니스트 펴냄)'에서 우리는 '생물학적 유전자와 문화적 유전자', '생명복제, 이제 인간만 남은 것인가', '인간 기원을 둘러싼 신화와 과학의 격돌', 'DNA는 영혼을 복제할 수 있는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소설인가 과학인가' 등 지극

인문학 사유와 과학적 지식 만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대표적인 논쟁거리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와 과학 지식의 최전선을 만날 수 있다. 나는 때로 인문학자의 유연한 사고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생물학자의 정연한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즐겁게 책을 읽었다.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신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는 최재천의 공격에 신화는 과학이 아니라 상징이고 은유이며, 답이 아니라 질문이며, 생물학적 설명보다는 인간성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도정일의 답변은 통쾌했다.

복제 기술과 우생학이 결합하게 되는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근친상간과 소설의 예를 든 도정일의 견해보다는, 자연계의 허다한 동식물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반박에 주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섹스를 하는 이유가 진화의 핵심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개량 인간이 된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볼 때, 개인은 월등해지는 데 비해 집단은 완전히 열등해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최재천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사교의 체계와 방식이 양극단일 수밖에 없는 인문학자와 생물학자의 대담이 공소하지 않고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공생 인간)라는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대담자의 전공 영역을 뛰어 넘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전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한판 승부, 혹은 소통을 흥미롭게 관전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란 <소설가·전남대 교수>



방송 진행 오프닝·클로징 멘트 엮어

첩첩상식 진중권 지음

'논객' 진중권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1년 여동안 '진중권의 SBS 전망대'를 진행하면서 남겼던 오프닝·클로징 멘트가 한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첩첩상식'은 '가해자'에서 '황우석'까지 161개 키워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저자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중립적이어서 할 사회자의 임무와 주관적이어서 할 논객의 역할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다. 저자는 특히 자신의 멘트에 광분했던 황우석 지지자들의 '애국적 언어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와 내면의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 책에 소개된 주제와 글들은 저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한 탓일까. 저자는 방송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신문과 잡지 등에 기고하던 칼럼을 모두 접었고 "이제 더 이상 공격적인 성격의 글쓰기는 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다. <새움·1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적지·호수·만년설... '성서의 나라' 분석서

이스라엘 평화가... 김중철 지음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유대인 가정집 지붕은 예외없이 빨간색이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지상 공격을 할 때 야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서다. 평화스러워야 할 성서의 땅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전쟁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평화가 사라져버린 5,000년 성서의 나라'는 방송 작가 김중철씨가 10년 전부터 스무번도 넘게 이스라엘을 찾은 뒤 써내려간 '이스라엘 분석서'다.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땅에 바다와 호수, 강과 만년설, 사막과 광야가 있는 나라. 가는 곳마다 성서나 역사책에서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적이 있는 곳. 저자는 때론 방탄조끼를 입은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가며 매력적인 땅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다. 팔레스타인과의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리수·1만5천9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p><b>화순건설</b> 주요사업 · 주택건설 · 아파트건설 · 상업용건물 · 공공기관 · 도로건설 · 하수처리장 · 학교건물 · 병원건물 · 호텔건물 · 문화체육시설 · 관광개발 · 도시개발 · 토지개발 · 컨설팅사업</p>
---	---	---	---	---	---	---	---	---	---

2006년 화순건설 실적

2006년 화순건설 실적

2006년 화순건설 실적